

임신부의 엽산영양과 임신의 결과 - 횡단적 연구 -

임현숙, 이종임, 이정아.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Folate status and pregnancy outcomes of pregnant women in Kwangju -Cross sectional study -. Hyeon Sook Lim, Jong Im Lee, Jeong A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세포분열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진 엽산은 임신기 여성에게 있어 모체조직의 증대뿐 아니라 태아의 성장발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영양소이며, 태아의 신경관손상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엽산 영양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분기별 엽산섭취상태를 조사하였고 적혈구와 혈장의 엽산 농도를 분석함으로써 엽산영양상태를 알아보았으며 이들이 임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산전진료를 위해 시내 산부인과에 내원한 건강한 임신여성 60명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일반사항을 질문하였고, 전 임신기간을 3분기(13주 미만, 14-26주, 27주이상)로 나누어 각 분기별로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식품분석표를 이용하여 식사를 통한 엽산섭취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엽산보충제를 통한 섭취량 및 섭취기간 등도 조사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혈액을 분기별로 얻어 적혈구 용적비를 구하고 *Lactobacillus casei*를 이용한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적혈구와 혈장의 엽산 농도를 분석하였다. 한편 대상자의 임신중 체중증가량을 비롯한 체위와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 신장, 제태기간 등의 임신의 소산자료들도 얻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결과는 SA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7.8세 및 평균 분만횟수는 1.4회이었다. 식사를 통한 엽산 섭취량은 임신 일삼분기, 이삼분기 및 삼삼분기의 엽산섭취량은 각각 80 ± 51 , 135 ± 78 및 120 ± 45 ug/d이었으며 임신 이삼분기의 엽산섭취량이 일삼분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엽산보충제 섭취기간은 104 ± 14 일 동안이었으며 섭취기간동안의 일일 엽산섭취량은 598.1 ± 254.6 ug/d이었다. 적혈구 엽산농도는 임신 분기별로 각각 372.4 ± 100.2 , 416.3 ± 117.4 및 419.9 ± 164.6 ng/ml이었으며 임신 이삼분기와 삼삼분기에 높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혈장 엽산농도는 분기별로 각각 9.2 ± 3.6 , 11.0 ± 5.6 및 17.1 ± 10.5 ng/ml로서 임신 일·이삼분기에 비해 삼삼분기에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대상자의 임신 중 체중증가량은 13.1 ± 2.8 kg이었고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은 3338 ± 301 g이었으며 출생시 신장은 50.7 ± 1.4 cm이었고 평균 제태기간은 39.4 ± 1.1 주이었다. 식사 및 보충제를 통한 엽산섭취량, 적혈구와 혈장의 엽산농도와 신생아의 체위 등 임신의 결과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